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2022. 3. 8

박지혜 연구원

CONTENTS

I.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퇴

II. 은퇴로 가는 3단계 과정 및 특징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2.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3. 실질 은퇴
-

III. 결론

< 요약 >

●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과거 대비 더 많은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이제는 은퇴를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닌 생애주기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퇴직·은퇴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점진적 은퇴 과정의 주요 단계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2021년) 평균 49.3세, 평균 근속기간은 12.8년임.
- 정년퇴직 비중은 하향세인 반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조기퇴직은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보다 이른 퇴직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인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대체 일자리에서의 경제활동 지속에 따라 실질 은퇴가 미뤄지고 있음을 시사함.

③ [실질 은퇴]

-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2018년)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공식 은퇴 연령(62세)와의 차이는 10.3년으로 각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실질 은퇴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로, 경제적 노후준비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노후 적자 상태를 극복하기 힘든 가운데 은퇴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있어,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보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청장년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별도의 연금자산을 마련하는 한편 이·퇴직시 발생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장기 자산배분 관점으로 계속 운용, 축적하여 노후의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응해야 함.

I.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퇴

- 사전적 의미로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남’, 은퇴는 ‘직임(職任)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뜻함.
- 실제의 상황에서는 주된 일자리에 퇴직한 이후 또 다른 경로의 경제활동을 이어 간다면 완전히 은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과 은퇴는 다른 의미가 됨.
- 주된 일자리에 퇴직한 다음 제 2의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진정한 은퇴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2021년 기준으로 60대 10명 중 5.9명, 70대 10명중 3.6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정년(60세) 이후에도 적지 않은 고령층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음(<도표 1> 참조).
 -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로, 2016년 1월 시행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 60세 이후의 경제활동참여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과거 대비 더 많은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도표 1〉 45세 이상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매년 5월 기준)

-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연장 추세는 은퇴를 정의하는 성격이 인생 후반부에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닌 퇴직 후 부분적 은퇴에서 완전 은퇴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과정(process)’으로 재정립되는 중임을 보여줌.
 - 점진적 은퇴 과정에서 사람들은 1)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 대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노동시장에 일정 기간 동안 남아 있다가 3) 완전히 은퇴하는 절차를 밟게 됨.
- 퇴직 및 은퇴 시점은 퇴직과 함께 근로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노후 소득원의 구성이 크게 달라지는 시점으로, 연금 자산의 적립·운용 및 인출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퇴직 및 은퇴 경향을 제대로 파악해 효율적인 연금 운용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노후 자산관리 실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퇴직 및 은퇴 동향을 통계청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은퇴로 가는 과정에서 마주할 주요 3단계(① 주된 일자리 퇴직, ②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③ 노동시장 퇴장 및 실질 은퇴)를 제시, 각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여 노후 자산관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은퇴로 가는 3단계 과정 및 특징

- 경제활동 측면의 생애주기에서는 1) 주된 일자리 근로 후 퇴직 → 2) 대체 경제 활동 참여 → 3) 노동시장 퇴장 후 완전한 은퇴의 순서로 주요 과정을 거치게 됨.
- 본 장에서는 최근 10년간의 퇴직 및 은퇴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은퇴 과정 3단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음.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 퇴직 시점을 파악할 때, 주된 일자리는 ‘생애 중 가장 긴 기간동안 종사한 일자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특정 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또는 고용형태(상시근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보는 것과 달리, 이같은 주된 일자리 정의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었던 근로자의 일자리 및 자영업자를 포괄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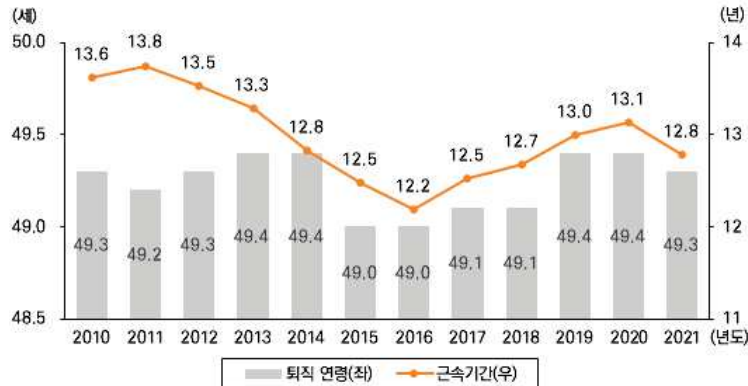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주된 일자리 퇴직 동향을 생애 중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한 통계청의 퇴직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의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과 퇴직 시 나이 자료를 이용. 통계청 자료에서의 연도별 조사 대상 연령은 상이함. 본고의 분석 대상은 55~64세 연령층이며, 각 시점에서의 주된 일자리 퇴직자에 한함.)

- 2021년 자료에 따르면(2021년 5월 현재) 55~64세 연령층은 평균 49.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으며, 퇴직 시 평균 근속기간은 12.8년임.

- 평균 퇴직 연령은 최근 10년 간 계속해서 50세 이전(약 49세)에 머물러 법정 정년인 60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2016년 이후 증가해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최근 다시 줄어든 상황임(<도표 2> 참조).

〈도표 2〉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동향 (2010~2021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매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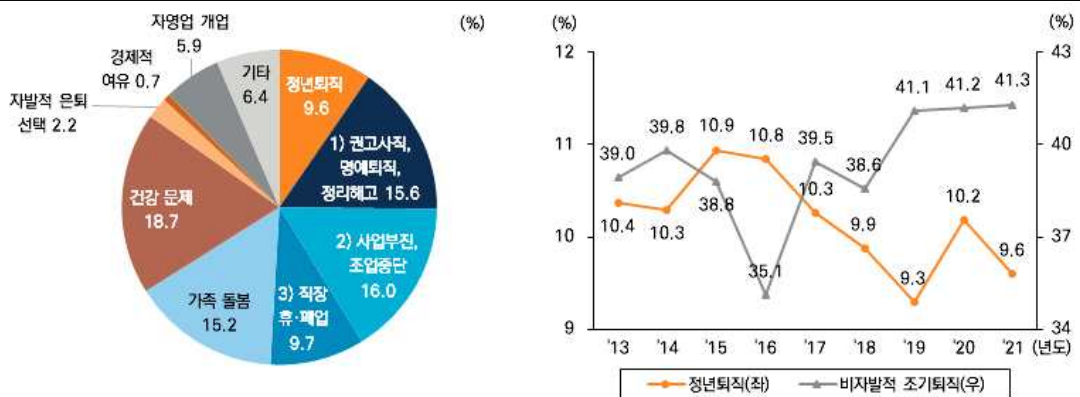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법정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음을 시사함.

- 임금근로자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사유를 살펴보면(2021년 5월 현재) 정년퇴직자는 9.6%에 그치는 반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5.6%), 사업부진, 조업중단(16.0%), 직장 휴·폐업(9.7%) 등에 따른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비중이 41.3%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7년간(2013~2021년) 정년퇴직 비중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보다 이른 퇴직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도표 3〉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사유

〈2021년 기준〉

〈정년퇴직 및 비자발적 조기퇴직* 비중〉



주: 비자발적 조기퇴직은 1), 2), 3) 등 피고용여건 변화 관련 사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매년 5월 기준),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 정보는 2013년부터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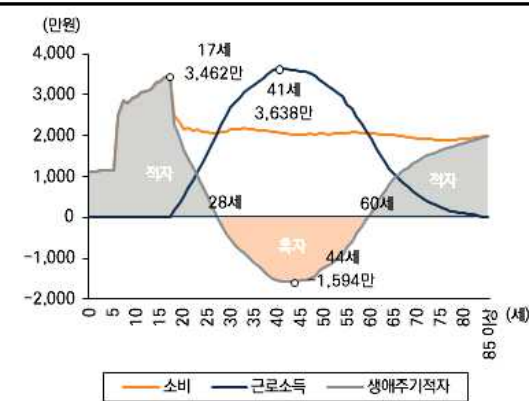
- 50세 전후에 짧은 근속연수를 채우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하는 중고령자들은 제 2의 일자리를 찾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도 하면서, 근로소득이 점차 감소하는 경제활동 생애주기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됨.
 -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서 서베이를 통해 5060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경로를 분석한 결과(2019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다음 평균 소득이 36.9% 감소하는 등 근로소득 여건이 뚜렷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됨.

2.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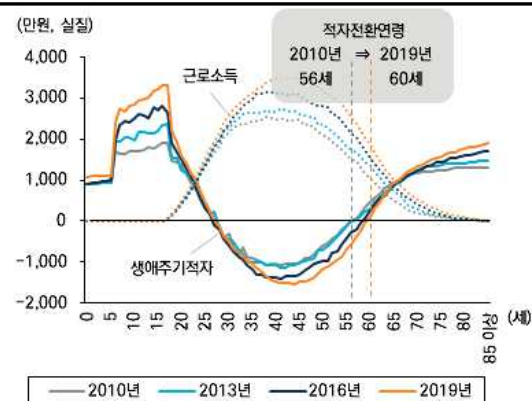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는 근로소득의 본격적인 감소로 인해 소비 여력이 부족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게 됨.
- 생애주기수지(balance) 즉, 소비 지출액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 흑자 → 적자의 흐름을 보이는데, 이 중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근로소득의 감소에 따라 도래함.
 -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시점은 소비여력 보강을 위해 추가 소득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점진적 은퇴과정 중 노후 자산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평균적으로 28세에 흑자에 진입하며,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44세에 최대 흑자를 보이고, 이후 근로소득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흑자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됨(<도표 4> 참조).
- 장년기 이후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 즉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4세 상승하였음(<도표 5> 참조).
 -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근로소득 프로파일이 우측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고령화로 은퇴를 미루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적자를 보는 나이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도표 4〉 2019년 1인당 생애주기수지 추이



〈도표 5〉 1인당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실질 수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물가 조정함.

〈국민이전계정〉

-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근로소득 및 소비(공공 및 민간 부문 포함)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에서의 흑자·적자 구조를 연령별로 파악한 자료임.
- 국민이전계정은 소득 원천으로 근로소득(임금 및 자영근로소득)만을 고려하는데, 그 이유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모두 기존에 얻은 근로소득이 다른 형태로 변환된 결과로 보기 때문임.
 - 이는 소비의 재원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해서 보는 일반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음.
- 국민이전계정에서의 생애주기수지는 ‘소비-근로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양수(+)이면 적자, 음수(-)이면 흑자 상태로 볼 수 있음.

- 퇴직 이후 소비와 근로소득 간 격차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생애주기수지 흑자 시기에 확보한 자산을 노후로 배분하는 것임.
- 주 근로연령층일 때 정부에 내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는 1) 공공보건,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3) 사회보호의 형태로 생애주기 흑자기의 소득을 노후로 배분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함.

◎ 공적연금 수급액만으로 노후 적자 상태를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재원이 될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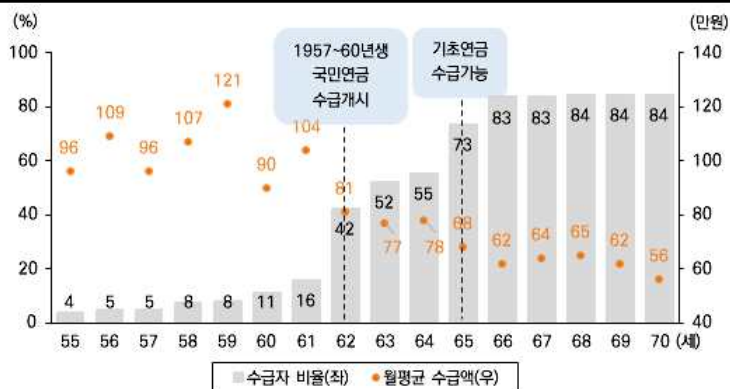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주된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3층 연금구조로, 공적연금(1층)을 일차 안전망으로 두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임.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생애주기수지 흑자 시기 즉 근로소득이 소비 지출액보다 큰 시기의 소득 중 일부를 자산으로 적립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 우리나라의 55~60세 연령층 중 공·사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2021년 5월 현재)은 10% 이하로 높지 않은 편임. 다만 수급자에 한정해보면 해당 연령대에 월 90~120만원 정도를 수령해 줄어든 근로소득을 보완하고 있음.

◎ 이는 공적연금 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60대 이후의 월평균 수급액보다 많아, 사적연금을 확보한 경우에 노후소득 보장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도표 6〉 연령별 공·사적연금* 수급자 비율 및 월평균 수급액 (2021년 5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함.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함.

3. 실질 은퇴

- 경제활동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는 완전한 은퇴이며, OECD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를 ‘실질 은퇴 연령(유효 은퇴 연령, effective age of labor market exit)’으로 정의하여 완전한 은퇴를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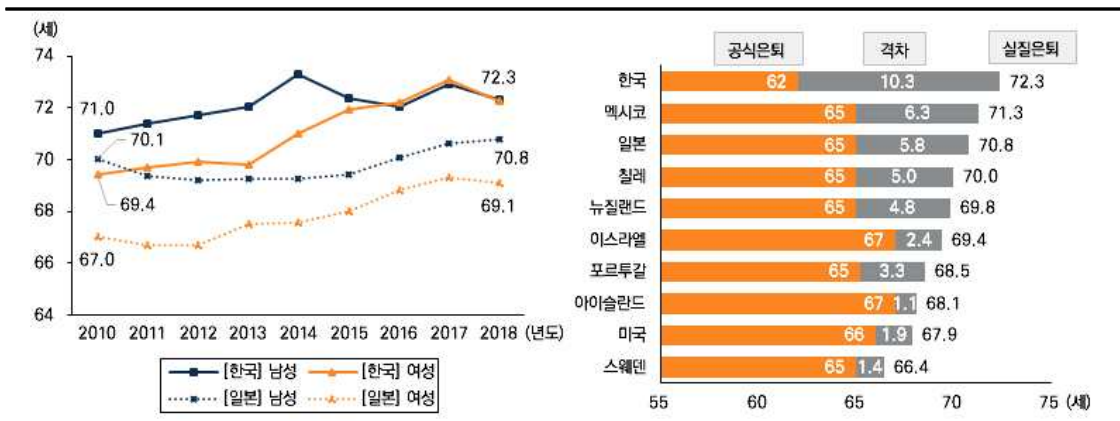
(※ OECD는 실질 은퇴 연령을 매년 국가별로 산출, 발표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의 2010~2018년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파악)

- OECD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72.3세로 초고령사회인 일본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 있음.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공식 은퇴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 간의 격차는 2018년 남성 기준 10.3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3위를 기록한 일본보다 4.5년 더 긴 편임.

〈도표 7〉 평균 실질 은퇴 연령

〈한국 vs 일본〉

〈주요국* 실질·공식 은퇴 연령 (2018년 남성)〉



주: 공식 은퇴 연령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며, 한국 연금 제도 개정에 따라 OECD 공식 은퇴 연령 자료를 61세에서 62세로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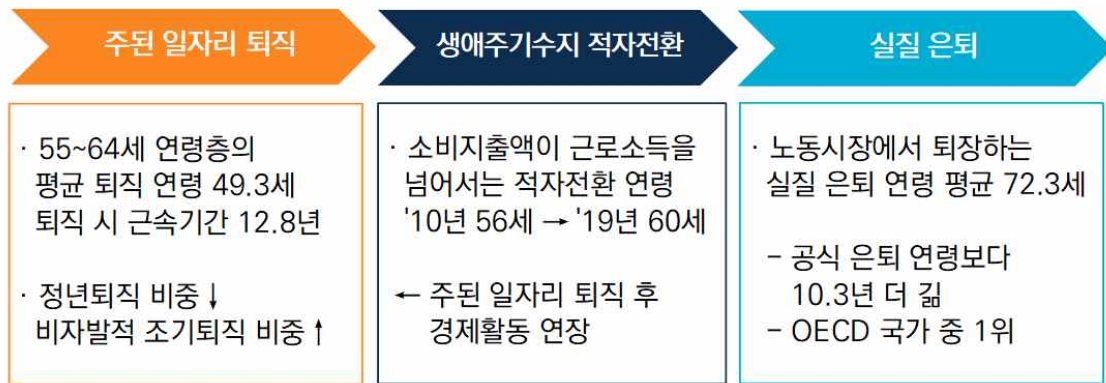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국가 중 실질 은퇴 연령이 높은 10개국

- 실질 은퇴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후에도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상당 기간 남아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함을 의미하며, 그만큼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줌.

III. 결론

-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점진적 은퇴 과정과 관련한 주요 특징은 경제활동 측면의 생애주기 주요 단계별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은퇴로 가는 3단계 과정 및 특징〉



- 최근 10년간의 퇴직 및 은퇴 동향 변화를 살펴본 결과, 비자발적 조기퇴직 후 소비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경제활동 연장 등으로 은퇴가 미뤄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확보해 조기 은퇴를 성취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 이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라는 이상과 달리 최근 MZ 세대 역시 최소한 법적 정년(60세) 이전에는 은퇴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적 상황 (투자와연금리포트 53호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참조)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 노후 적자 상태를 극복하기 힘든 가운데 은퇴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있어,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보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청장년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별도의 연금자산을 마련하는 한편 이·퇴직시 발생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장기 자산배분 관점으로 계속 운용, 축적하여 노후의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응해야 함.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 [43]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
- [44] 초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2019.11
-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 [52]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11
- [53]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12

투자자산운용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